



여수 송기홍



영광 서희권



영암 조대호



완도 김광수



진도 조상용



함평 김광춘



화순 박순철

여수시, 맞춤형 돌봄 '국동 아이나래 행복센터 개소'

9세~12세 아동 대상...소득 수준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여수시는 지난 16일 오후 국동 주민센터 2층에서 아이나래 행복센터 개소식을 갖고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시작했다.

국동 아이나래 행복센터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오후 1시부터 저녁 9시까지 6세에서 12세 아동을 보살펴주는 돌봄 터다.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급한 상황에 처한 가정은 아이나래 행복센터에 아이를 맡기면 돌봄 교사가 돌봄, 귀가 지원, 부모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동 아이나래 행복센터는 평소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거점별 돌봄 센터를 만들겠다는 권오봉 여수시장의 의지가 담긴 첫 작품이다.

시 관계자는 "아이나래 행복센터가 단순히 아이들이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 또래 친구들과 함께 놀기도 하며 공부도 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돌봄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상반기 돌산읍과 소라면에 아이나래 행복센터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9월에는 웅천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개관할 예정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함평군, 사포관광지 개발사업 첫 발...투자협약 체결

루지어드벤처·휴양콘도·스트리트상가 등 부대시설 건립



함평군이 전남 서부권 관광벨트의 중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16일 함평군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윤영 함평군수, 신명진(루지어드벤처 회장) 이날 함평군청에서 만나 오는 2024년까지 함평군 화교면 사포관광지에 총사업비 9,014억 원(지기자본 20%)을 투입하기로 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민간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사포관광지 일원 614,443㎡ 부지에 ▲숙박시설(휴양콘도미니엄 3동, 관광호텔), ▲상가시설(스트리트 상가, 면세점, 부대시설), ▲운동오락시설(루지어드벤처, 전망대 리프트), ▲휴양문화시설(야생화정원, 트레킹코스, 국제학교, 온천장) 등의 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주요골자로 한다.

특히 이 일대가 수려한 자연경관

으로 유명한 영산강변에 위치한 만큼 스트리트 상가는 루지어드벤처, 영산강, 야생화정원 등과 연계된 400m 길이의 개방형 상가로 조성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서진건설 측이 제출한 사업계획서에서 자기자본 1,809억, 분양수익 4,507억, 금융차입 2,704억 원의 자금조달계획을 밝혔다"면서 "검토결과 서진건설이 673명에 달하는 인직원을 거느리고 지난 2017년 말 기준 1,149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만큼 자기자본 조달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해 투자협약 대상자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영암군, 야간 세무민원실 운영 맞춤형 세정 서비스 제공

영암군은 바쁜 일상으로 근무시간 중 세무 관련 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국세 및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무상담을 통하여 세정서비스를 제공, 확대하고자 2월부터 '야간 세무민원실'을 운영한다.

군은 분청 재무과에 야간 세무민원 창구를 설치하고 세정팀장과 납세보호관 및 세무직 직원 2명을 1

조로 야간 근무자를 편성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18시부터 20시까지 납세고지서 재발급,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신고서 접수처리, 체납차량 영치 변호관 교부, 지방세 제증명 발급 안내, 방문 및 전화 민원상담 등의 업무를 처리한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정기본세 납부기간에는 1~2명을 추가 투

입해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오자영 재무과장은 "맞춤형 세정 서비스제공으로 국민의 세정에 대한 신뢰가 향상되고 각종 세급신고와 납부시간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지방세수 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암=조대호 기자

장흥군, 주차난 해소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박차'

올해 53억투입 장흥읍 시가지에 150여대 조성

장흥군은 장흥읍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장흥군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스위스호텔 옆 부지에 16대를 주차할 수 있는 소규모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예산53억원을 들여 임시주차장 1개소, 공영주차장 4개소

등 총면적 5,015㎡에 150여대가 주차할 수 있는 주차환경개선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0년에는 군민회관과 보건소 뒷편에 1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지상 3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설치해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 할 계획이다.

군은 매년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공모해 주차로 인해 불편을 겪는 군민과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관광객을 위해 주차공간 확보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앞으로도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최우선으로 시행해 주민 편의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도군, '귀농인 지원사업' 29일까지 접수

귀농인 안정적 농촌 정착 유도...7개 사업 3억3천250만원 지원



진도군이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귀농인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오는 29일까지 받고 있다.

진도군에 따르면 ▲귀농인 정착지원 ▲귀농인 농지제 지원 ▲귀농인 농기주택 수리비 지원 등 총 7개 사업 3억3천250만원이며 관내 귀농인들이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진도군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만 65세 이하 귀농인으로 신청 희망 귀농인은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증빙서류를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귀농종합지원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또 귀농 교육 100시간 이상을 이수한 귀농인을 대상으로 최대 3억7천500만원(농업창업 3억원, 주택 구입·신축 7천500만원)까지 융자 가능한 '귀농인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도 연중 모집한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담당 관계자는 "다양한 귀농지원사업으로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우수 농업경영인력으로 양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화순군, 지적 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화순군이 2019년 지적 재조사 사업의 첫발을 뗐다.

화순군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토지소유자와 마을 주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군은 '2019년 지적 재조사 사업 지구'로 한천면 가암·오음·정리지구 실시계획을 수립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종이 지적을 다시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시행한다. 측량에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다.

군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아 초과되는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소하

고, 토지의 이용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2017년부터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 군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 대상지의 규모는 한천면 가암리, 오음리, 정리 일원의 총 348필지 29만5539㎡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 군은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의 목적, 지구 선정 배경, 추진 절차, 토지 소유자 협조 사항 등 설명하고 공유했다.

군은 앞으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절차에 따라 사업 예정지의 토지 소유자 2/3 이상 동의와 면적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오는 3월 전라남도에 지구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 담당자와 주민의 소통, 토지 소유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해당 지역 주민과 소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박순철 기자

곡성군, 영농기 이전 유기질비료 공급 박차

곡성군이 영농기 이전에 2019년 유기질비료를 공급하고자 지난 15일 곡성군 유기질비료 공급관리협의회를 거쳐 공급업체와 농가별 공급량을 확정하는 등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2019년도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으로 확정된 공급량은 68만1천포(20kg)로 금액으로는 11억 원에 달한다.

비종별로는 유기질비료는 9만 8천포(20kg)로 포당 1,900원(국비 1,100원, 군비 800원)을 지원한다. 부속 유기질비료는 58만 2천포(20kg) 1등급 기준 1,600원(국비 1,000원, 군비 600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곡성군은 군비 사업으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부속유기질비료 및 유기질비료 27만5천포(20kg)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분에 대해서도 20kg 1포당 유기질비료 1,900원, 부속유기질비료는 1,600원을 지원한다.

곡성=김광휘 기자

친환경 천연 장성잔디

전남 장성군은

전국 최대의 잔디생산지이자, 30여년의 잔디 재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어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품질, 용도의 잔디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 잔디 생산의 메카입니다.

장성잔디

장성잔디향토사업단

061. 393. 8981

전국 잔디 생산량 62.2%

장성군은 전국 잔디의 62.2%를 생산하는 국내 최대 잔디 생산지 생산액은 304억 규모로 생산액 기준으로는 전국의 66.5% 차지

국내 최고의 품질

토질이 우수한 황토 흙에서 키워 품질이 우수하며 잔디의 맛과 향도가 매우 높음.

현대화된 장비로 효율적 관리

잔디의 회전율이 높고 예지 후 잔디 예초율에 대한 수거작업 실시로 대취 관리 병행